

유예

뜻: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 또는 그런 기간

갈래: 단편소설, 심리소설, 전후소설

성격: 독백적, 실존적

기법: 의식의 흐름 기법

(창작기법인 '의식의 흐름'은 소설 속 인물의 파편적이고 무질서하며 잡다한 의식

세계를 자유로운 연상작용을 통해 가감없이 그려내는 방법을 말한다)

시점: 1 인칭 시점, 3인칭 시점 혼용

배경: 6.25전쟁 눈덮인 들판

줄거리

주인공 '그'는 수색대를 이끌고 적의 배후 깊숙이 침투했다가 본대와 연락이 끊어지면서 소대원을 이끌고 남하한다. 적을 피해 산을 타고 남하하지만 잦은 전투와 굶주림으로 대부분의 소대원을 잃어버린다. 배고픔, 추위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결국 선임 하사와 그만 남게 된다. 군대 생활이 무엇보다도 재미있었던, 일복군에 소집되어 남양 전투에도 종군하는 등 많은 전쟁에 참전했던 선임 하사도 결국 총에 맞아 죽는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그는 몸을 숨긴 어느 민가에서 적에게 붙잡혀 죽게 된 한 포로를 구하다 부상 당한 채 적들에게 사로잡힌다. 그가 구하려던 포로는 포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기계나 도구가 아닌 생명체인 인간임을 느꼈다면서 남쪽을 향해 건다가 피살된다. 그 역시 그 포로가 그랬듯 사수가 뒤에 서 겨누고 있는, 남쪽으로 난 길을 걸으며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다

구조

발단	적에게 잡힌 '그'는 처형까지 한 시간의 유예 시간이 주어진 가운데 음막 속에 갈려 전쟁의 무의미함에 대해 생각함
전개	전투 중 '그'는 너무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불가피하게 후퇴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하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하게 되
위기	홀로 남하하던 중 어느 마을에서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혀 처형되려는 아군을 구하려다가 인민군에게 붙잡히게 됨
절정	인민군들은 '그'에게 전항을 제안하지만 '그'는 끝까지 전항을 거부하고 처형 집행 명령을 받게 됨
결말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그'는 총을 맞고 의식을 잃어감

주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의 인간의 고뇌와 죽음

특징

-작품의 제묵처럼 충실당하기까지의 유예기간동안 한 인간이 느끼는 존재 실존적 가치에 몰두하는 주인공 등장과 전쟁의 무의미함을 나타냄

-의식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서술함으로써 인물이 처한 상황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주인공의 시점과 잔지적 작가시점이 혼용되어 나타남

-현재형 어미 사용으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음

-색채이미지인 회논과 붉은 피의 색채대비로 비극성 강조와 순백의 이미지로 전쟁으로 인하여 인간 생명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차디찬 무관심한 세계를 상징함

-전쟁상황의 비정함을 나타냄

-1950년대 주오한 경향 중 하나인 실존주의를 반영

(실존이란 말은 원래 철학용어로서 어떤 것의 본질이 그것의 일반적 본성을 의미하는 데 대하여, 그것이 개별자로서 존재하는 것을 의미)

유예 <오상원> 갈래 : 만편 소설, 심리 소설, 전후 소설, 실존주의 소설

1. 작가

오상원, 소설가·인론인.

대표작 - 유예, 모반, 백지의 기록, 행선지대 등

특징 - 전후 문학과

- 이태울로기의 갈등으로 빚어진 상황 앞에 던져진 인간의

실존적문제를 집요하게 탐구.

- 보편적인 휴머니즘으로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

는 것이 대부분.

2. 배경

(1) 시간

- 겨울. 한 시간이라는 삶의 유에 기간인 현재에서 출발하여 과거, 파

래를

거쳐 총살 적전의 현재.

(2) 공간

- 전쟁으로 폐허가 된 어느 마을의 읍마과 눈 덮인 대지

3. 등장인물

서둘라

그(나) - 이 소설의 화자이며 전쟁에서 패해 도망가는 낙오병들의 소

대장.

비인간적인 참혹성을 독백과 회상 형식으로 담담하게 표현하며

부하를

아끼고 정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군인.

포로가 되어 결국 총살당함.

선임 하사 - '그의 부하로서 극한 상황에서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함

4. 줄거리

수색대 소대장인 주인공은 부하들을 이끌고 북으로 진격한다. 일행은 수 차례의 전투를 거치면서 적의 배후에 깊숙이 들어가게 된다. 본대와의 연락은 끊어졌고 후퇴하기도 쉽지 않다. 기아와 피로에 낙오자는 점점 늘고 가고 눈 속에 쓰러지는 부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들을 남겨놓고 후퇴를 하던 중 어디선가 일발의 총성이 울림과 동시에 선임하사가 쓰러졌다. 그를 끌고 산속으로 돌아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새벽이다. 전투가 제미 있다고 하던 선임하사는 이제 자기가 죽을 차례가 되었다고 말하며 의식을 잃어간다. 주인공은 다시 눈 속을 헤치고 남으로 걸어갔다.

이튿날 산 아래에 버려진 마을이 보였다. 그곳에서 한 청년이 총살당하기 직전인 광경을 목격했다. 곧 총살될 청년을 보고 주인공은 그 병사가 마치 저 자신인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다. 주인공은 적들에게 총을 난사했다. 상대방의 응사로 주인공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결국 그들의 포로가 되었다.

"한 시간 후 동무의 답변이 모든 것을 결정지를 것이요."

포로가 된 후 나는 죽음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준비 완료 보고와 집행 명령이 떨어지고, 주인공은 눈 덮인 독길을 걸어 간다. 끝나는 일초일각까지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5. 사건진기

발단 - 인민군에게 잡혀 총살당하게 된 그의 심리적 갈등이 제시됨

전개 - 북으로 진격했으나 적의 배후 깊숙이 들어가 몇 차례 전투 후에 6명만 남음

위기 - 인민군의 병사 처형 장면을 보다가 자신의 처지라 인식하고 구하러다 부상당함

결정 - 전쟁에 헛되어 죽는 인간 존재의 비극성이 눈 덮인 들판에 주제

로 암시됨

결말 - 죽음 직전의 마지막 의식이 전쟁의 비인간성을 고조시킴

6. 특징

- 시간의 순차적 진행에서 벗어나 '의식의 흐름'이라는 소설 기법을 사용해서
- 심리적 갈등을 주로 서술함.
- 호흡이 짧은 문장과 현재형 진술을 사용하여 급박한 분위기를 형성함.
- 시각적 이미지의 대조를 통해 비극성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함. ex. 검붉은 피 ↔ 흰 눈
- 휴머니즘적 실존주의 경향의 작품임.
- 현재형에 의한 진술이 중심
-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의 혼용

7. 주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의 인간의 고뇌와 죽음. 전쟁과 죽음이 무의미하다는 실존적 인식, 전쟁의 비극성과 인간 존재의 허무함

#제목 {유예}의 상징적 의미

: '유예'는 '일을 결정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룬 기간'을 뜻하는 말로, 이 작품에서 '유예'의 의미는 인간 군에게 총살을 당하기까지 미루어진 주인공의 죽음의 시간, 곧 '한 시간'의 유보 시간을 의미한다.
전쟁의 의미 : 인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주어진 극한의 상황

#작품 개관

갈래	단편 소설, 전후 소설, 심리 소설	성격	비판적, 실존적, 독백적, 비극적 시간적 배경-6.25 전쟁 / 겨울 공간적 배경 - 어느 마을과 눈 덮인 독길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과 부분적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주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의 인간의 고뇌와 죽음 / 전쟁과 죽음이 무의미하다는 실존적 인식 / 전쟁의 비극성과 인간 존재의 허무함		

#특징

1. 포로로 잡힌 군인이 사형되기까지의 심리를 의식의 흐름 수법으로 묘사한 대표적인 **전후 소설**임
2. 1인칭 주인공 시점과 부분적으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혼용이 있음(필요에 따라 서술 시점의 교차가 있음) -> **시점을 교차하면서 인물의 심리를 생생하게 전달함**
3. 시간의 순차성을 무시하고 **의식의 흐름**에 초점을 맞춘 (장면 장면이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이어지고 있어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을 반영함) -> 전쟁과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을 세밀하게 포착함
4. 영화처럼 분절적인 장면들이 모여 하나의 의미를 만들 (영화적 기법 O)
5. 과거 회상과 현재 시점 혼용 -> 연속성과 현장감 느낄 수 있음
6. 1인칭 화자의 **독백 형식과 현재형**에 의한 진술 -> 의식 속에 진행되는 사건에 생생한 현장감을 부각시켜 인간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차디찬 세계의 무관심을 강조하고, 전쟁의 비극성을 고조시킴

#줄거리

발달 : 인민군에게 붙잡혀 총살당하게 될 그의 심리적 갈등
전개 : 북으로 진격했으나 적의 배후 깊숙이 들어가 몇 차례 전투 후에 소대원 6명만 남음
위기 : 인민군의 포로 처형 장면을 보다가 그것이 본인의 처지라 인식하고 저격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포로로 붙잡힘
절정 : 적이 '나'를 회유하고 '나'는 엉뚱한 대답을 하였고 결국 사형이 집행됨
결말 : 인민군은 남쪽으로 돌아가라 하고 뒤에서 총을 겨눈. 눈 쌓인 독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이 선택한 죽음을 맞이함.

#전후 문학의 특징 : 전쟁의 체험을 통해 인간성의 파괴함을 고발, 전쟁 비극의 폭로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의식의 흐름 기법

: 작가의 개입에 의한 전지적 해설이나 직접적 언급 없이 작중 인물의 사상과 정서 그리고 어떤 소설적 상

황에 대한 태도 등을 서술하는 기법이다. 주인공이 행하는 행위나 그가 겪어 가는 사건을 그리기보다는 주인공의 의식 속에서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의 파편들을 현재형으로 그림으로써 사건을 암시하는 방식이다. 작중 인물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나 타인에 대한 생각, 그리고 과거의 상황 등이 객관적으로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작중 인물의 주관 속에 철저히 주관화된 채로 드러난다.

=> 작가는 주인공의 의식을 중심으로 하여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실존적 물음을 던지고,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의 인간의 존재와 죽음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원의 의미

: 작품 전체의 배경과 분위기를 드러내는 소재로 총살 직전의 냉혹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인간 생명에 대한 무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얗고 차가운 눈의 이미지를 통해 전쟁의 비인간성이 강조되고 있다. / 변함없이 아름답게 내림

<-> 대비되는 소재 : **붉은 피** - 주인공의 죽음의 비극성

=> 죽음의 비극성 고조

#죽음의 실존적 의미

1. 작품 속 죽음은 실존적 의미를 지닌 유의미한 끝이다. 죽음의 순간이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자기를 완성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2.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의 표현이다.

#인물 & 갈등

나	전쟁으로 인한 갈등	그들(인민군)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됨	<-> 인간 실존의 무의미함	아무렇지도 않게 '나'의 처형을 집행함

주인공 : 6.25 국군 수색대의 소대장 / 인민군의 포로가 되어 총살을 앞 둔 주인공 -> 삶의 유예 기간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갈등을 보임 / 부하를 아끼고 정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군인
선임하사 : 전투가 재미있어 많은 전쟁에 참여하고 죽을 앞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은 직업 군인

#실존주의적 경향

: '유예'는 6.25 전쟁의 원인이었던 이데올로기 대립 너머의 보다 실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은 국군으로 전쟁에 참전하고 있으며, 포로가 되어서도 공산주의에 반대했기 때문에 끝내 총살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주인공에게 죽음은 그 자체로 다가올 뿐, 이데올로기 대립과는 상관이 없다. 주인공은 공산주의에 반대하기 위해 죽음을 택하는 것이다. 아니라 "태어난 본연의 그대로 싸우다 죽는 것, 그것뿐"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선임하사의 삶이 이러한 삶을 대변하고 있다. 그는 일본군의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군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살기 위해 군인이 되었던 것이다.

- 갈래** - 단편소설, 전후(戰後) 소설, 심리소설 (등장인물의 사고·감정·동기가 이야기 전개상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소설)
- 성격** - 독백적, 실존적
- 배경** - ① 시간적 배경: 6·25 전쟁 당시의 겨울, 한 시간이라는 삶의 유예기간
② 공간적 배경: 폐허가 된 어느 산골 마을의 움막과 눈 덮인 들판
- 시점** - 독백 형식의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이 혼용되어 사용됨
- 주제** -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이 겪는 실존적 고뇌, 인간의 존재 가치를 말살시키는 전쟁의 비극성에 대한 비판
- 특징** - 의식의 흐름 기법 (인간의 의식을 흐르듯 연속적으로 서술)에 따라 주인공의 분열된 내면 의식을 강조.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면서 내용 전개. 호흡이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급박한 분위기를 형성.
- 경향** - 휴머니즘적 실존주의 (인간의 주체적 의지를 강조)

등장인물

- ① 나: 국군 소대장으로 적의 추격으로 홀로 남아 저항하다가 결국 포로로 잡힌다. 전향을 거부하다가 처형당하는데 처형을 기다리는 한 시간 동안 죽음과 인간의 실존에 대해 진지하게 고뇌한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게 되면서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지키는 인물이다.
- ② 선임 하사: '그'의 부하. '그'의 의식 세계를 보여주는 데 참고가 되는 주변 인물. 전쟁의 무의미함을 드러내 주는 인물. 극한 상황에서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 ③ 인민군: '그'와 전쟁으로 인한 갈등 관계에 놓여있는 인물들로 아무렇지 않게 '그'의 죽음을 집행한다.

줄거리

6·25 전쟁 중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힌 국군 소대장인 '나'는 전향을 거부하고 처형을 당하게 된다. 처형 전까지 한 시간의 유예 시간이 주어지고, 땅을 판 움 속에 갇힌다. 이어 '나'는 적진 깊이 들어갔다가 후퇴하면서 부하들을 잃고 홀로 남하게 되고, 한 마을에서 아군이 북한군에게 처형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응시하다 붙잡히게 된 과거를 회상한다. 이러한 회상의 중간마다 포로가 되어 심문을 받으며 전향에 대한 끊임없는 회유를 받지만 '나'는 전향을 거부하고, 죽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적에게 처형당한다.

발단	인민군의 포로로 잡혀 총살을 앞둔 '나'는 한 시간의 유예 시간 동안 지난 일을 회상한다.
전개	'나'는 수색대를 인솔하여 적진 깊이 들어갔다가 후퇴하면서 부하들을 잃고 혼자서 힘겹게 남쪽으로 내려온다.
위기	어느 마을에 도착한 '나'는 인민군들이 아군을 총살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인민군들에게 총을 쏘다가 붙잡힌다.
절정	인민군은 '나'에게 사상 전환을 하라며 회유하지만 '나'는 전향을 거부한다.
결말	흰 눈이 쌓인 독길에서 '나'는 죽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죽어 간다.

소재의 상징성

흰 눈 - 흰 눈은 작품 전체의 배경이 되고 분위기를 만드는 소재이다. '그'의 죽음에는 아랑곳없이 흰 눈은 변함없이 아름답게 빛난다. 흰 눈은 나의 죽음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주인공이 총살되기 직전의 냉혹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통하여 인간 생명에 대한 무관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햇빛을 받아 밝게 빛나는 흰 눈이 주인공이 흘리는 붉은 피와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렇듯 흰 눈과 붉은 피의 선명한 이미지의 대조를 통해 전쟁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붉은 피 - 인간의 생명을 상징한다. 그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유예

© 3504 노예원

© 3504 노예원

→ 전쟁 중, 전쟁 이후에.

갈래: 전후소설, 현대소설

성격: 독백적, 실존적

배경: 시간: 6·25 전쟁 당시의 겨울 / 한 시간의 삶의 유예기간

공간: 폐허가 된 어느 산골 마을의 움막과 눈 덮인 들판

→ 인물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겪는 실존적 고뇌

→ 외면적 사건보다 인물의 내면에 집중

표현상 특징 ① '의식의 흐름 기법' 사용

② 흐름이 잦은, 현재형 문장 사용

③ 계절적 배경과 자연물 사용

④ 시점의 혼동

⑤ 시각적 이미지의 대조 — 비극성을 감각적으로 형상화

* 흰 눈 ↔ 붉은 피 ⇒ 비극성 고조

= 인간 생명에 대한 무관심

줄거리: 북에서 남하하던 중 어느 마을에서 아군(청년)이

총살 당하는 장면을 목격, 총을 쏘았다가 포로로 붙잡히고

인민군이 전향을 화유하지만 거절한다.

이 후 죽음이 아득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여 총살당한다.

<유예 - 수능출제 부분>

- 양아야 = 뽕은 선지

뽕무 ~ ~ 못 박혔다. - 3인칭 시점

이것이 한 없이 기쁨 뿐입니다. - 주제 의식: 인간 존재의 가치

눈 앞이 빙빙 ~ 나 자신이다. - 1인칭 시점

쓰러진다. 분명히 두 눈이 쓰러졌다. - 현재와 과거 (올바른 이념 x)

바른 편 팔 위에 꺾통이 일어난다. - 현실적

얼음상처럼 밑이 차다 ~ ~ 정확한 ~

- 의식의 흐름 기법 = 초현실주의 계통의 작가들
주로 사용

= 대필작: '이상'의

'오감도', '날개'

= 인물의 정신을 스치는 무계획적이고
비논리적인 흐름을 기록하는 것

고개를 들었다. - 현실적

흰 눈 - 비참하고 비극적인 현실

아니. 아득것도 아니다. 아득것도 아반 것이다. - 반부의 효과: 전쟁 상황에서 인민의
가치가 무의미함 강조

흰 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진다. - 죽음에 이르는 비극적 상황을
선명하게 부각 (흰 눈)

모두 평범한 일 ~ 위에 부서진다.

- 특이 = 짧은 문장과 긴장된 상황을 박진감 있게 제시

= 짧은 문장 사용 → 죽음의 절박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시

= " → 불안정한 심리와 단절된 의식

<유예>

→ 미룬다, 연기하다
오승원

→ 제목의 의미: 주인공의 사형 집행이 1시간 미뤄졌다.

• 갈래: 단편소설, 상리소설, 전후 소설
↳ 장은 내면의 병역 중 하나다

• 성격: 독백적, 실존적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의 혼용

• 배경: <사건> 한국 전쟁 당시 거로
공간: 만산로 마을 눈 덮인 들판

• 주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의 인간적 고뇌와 죽음

→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줄거리]

- **발단** — 처형까지 한 시간의 유예 시간이 주어지며 전쟁의 무의미함에 대해 암묵함.
- **전개** — 전투 중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부하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하게 됨.
- **위기** — 홀로 남았던 중 인연들에게 포로 잡혀 처형되려 한 아픈 구하러다가 인연들에게 붙잡히게 됨.
- **절정** — 인연들은 전황을 겨냥하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처형 집행 명령을 받게 됨.
- **결말** —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총을 맞고 의식을 잃어감.

[표현상 특징]

- 의식의 흐름을 갖는 2개의 서술 → 인물이 처한 상황, 생각 효과적으로 드러냄
- 짧고 간결한 문장 → 인물이 불안정한 심리, 긴박한 상황, 단발된 의식 드러냄
- 현재형 시제 서술 → 상황의 생동감, 현장감 표현
- 시간의 순차적 진행 벗어남 → 인물의 내면세계 의식의 흐름 서술
- 사막적 이미지의 대조 → 비극성 감각적 표현

→ '흰 눈'의 상징성

↳ 결함의 상황 강조

무관심의 세계 상징

) ⇒ 비극성 강화 효과적 기여

